

# 버스-트럭 충돌사고 브레이크 고장 의심

### 6일 4.5t 트럭 내리막길서 버스 등 3대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됐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국과수, 고장·과적 여부 조사... 도, 사고대책본부 꾸러

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버스-트럭 4중 충돌 사고는 4.5t 트럭의 브레이크 문제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4.5t 트럭 1대, 1t 트럭 1대가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천단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내리막을 달리던 4.5t 트럭이 앞에 있던 1t 트럭을 충격한 뒤 정차해 있던 버스 2대를 연이어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버스 1대가 인도와 버스정류장을 덮친 뒤 입야로 추락했고, 4.5t 트럭과 1t 트럭 등은 도로 위에 날부러졌다.

인명피해는 박모(74·여·버스 승객)씨, 이모(32·관광객)씨, 김모(29·버스 승객)씨가 사망했다. 당초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모(21·여·버스 승객)씨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극적으로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4명이 중상(버스 승객 2명·1t 트럭 운전자·보행자)을 입었고, 54명이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

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쿵’하는 소리가 난 후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전도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4.5t 트럭이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의 전 단계의 ‘페이드 현상’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이퍼 록 현상은 내리막길을 달리는 운전

자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면 마찰열로 인해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4.5t 트럭은 서귀포시에서 한라봉과 천혜향을 싣고, 평화리와 산록도로, 어승생악, 관음사를 통해 사고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목적지는 제주항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4.5t 트럭 운전자 A(41)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

으며, 4.5t 트럭의 과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며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부)를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도는 피해자 후속 병원에 10명의 안내 공무원을 배치해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각 버스 탑승객들과 연락을 취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상 방법과 보상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와 관련, 7일 국과수 관계자 등이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 지법, 송재호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결심공판 검찰 “당선무효돼야”...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100만 이상의 발급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 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를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 4·3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즉 피고인은 국

회원이 되기 위해 3명에게 달하는 제주도민이 아무런 이유없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4·3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실제 1억 9900여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으면, 무보수로 국가에 봉사했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어 선거인의 표심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제주4·3 해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 행여 4·3유족들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했지만, 다행히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디 제가 도민과 4·3희생자 유족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어린이집 원아 12명 식중독 의심 신고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제주시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 원생 12명이 구토 및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5일 원아 1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뒤 7일까지 총 12명이 잇따라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검체 채취와 당시 원생들이 먹었던 급식에 대해 분석을 벌이고 있다”며 “해당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 서귀포시-제주대병원 소아심폐소생술 교육

서귀포시가 제주대병원 ‘두근두근생명지킴이센터’와 연계해 오는 5~11월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신청자 750명을 대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별로 안전교육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번 소아심폐소생술 무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내 어린이집은 123개소이며 보육교직원은 1337명이다.

이번 교육은 30회에 걸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이론교육 2시간은 추후 비대면으로 3회가량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별로 교육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아라동 내리막길... 사고나면 대형 피해

### 2014년 8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3명 숨져 경찰 “과적 피하고 엔진브레이크 사용해야”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4중 충돌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과열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4.5t 트럭이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의 전 단계의 ‘페이드 현상’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이퍼 록 현상은 내리막길을 달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면 마찰열로 인해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

지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13일에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내려오던 8.5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고와는 불과 약 1.6km 떨어진 곳이다.

당시 경찰은 8.5t 트럭이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페이드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17년 7월 8일에는 제

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모(당시 33세)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베이퍼 록 현상’을 일으켜 인근 입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적색 신호등이 켜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베이퍼 록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에 무리를 주는 과적은 반드시 피하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변속기를 저단에 놓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경찰에 폭력행사 20대 집유

제주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중계를 던지고, 손가락을 깨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0시17분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를 던져 왼쪽 귀 뒷부분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또 다른 경찰관의 엄지 손가락을 5초 동안 강하게 깨문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앗이 특가할인!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입구 CGV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사,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 1,2,3년생

감골 ..... 1,3,4년생

병자모목 ..... 1년생

성하홍조생 ..... 1년생

성전온주 ..... 1년생

천해향 ..... 4,5년생

황금향 .....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